



제 1부: BASIC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막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영적 어른과 같이 성숙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교재는 영적 어린 아이가 영적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이 함께 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1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다섯 가지 훈련 과정을 다루게 되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의도로 ‘BASIC’이라는 영어 단어로 그 과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티타임: B (Bible Study-성경 공부)

두 번째 티타임: A (Attending the Worship Service-예배에 참여하기)

세 번째 티타임: S (Sacrifice and Service-희생과 섬김)

네 번째 티타임: I (Intercessory Prayer-기도)

다섯 번째 티타임: C (Communion of Saints-성도의 교제)

각 티타임의 내용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영성생활의 BASIC이 몸에 익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Bible Study 성경 공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15~17
요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16~17절)
찬송	199장(통 234, 나의 사랑하는 책)
이과의 목표	성경 공부를 하는 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는 목적, 즉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1. 성장을 위한 도전

예수님께서 공생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삼 년간의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일만 시간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수학 문제를 준비해 보았다: “일 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만 시간을



채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일년이 52주니까 일년에 52시간, $1:52=x:10000$, $52x=10000$, $x=10000/52$, $x=192$.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192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배 시간 외에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한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두 시간은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2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96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대략적인 시간(하루11시간 X 6일 X 52주 X 3년=10,296시간)을 제자되기 위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이 시간이 대략 일만 시간이라고 할 때,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만으로 그 일만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주어진 생애 동안 그 시간을 결코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종교적 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동안 교회 출석을 해 온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여 덕이 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 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꼭 성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유치해 보이지만, 현재 교회 안에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주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 출석 교인들 중 명목상 교인이 39.5%를 차지했다. 명목상 교인이란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성경 읽기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다. 명목상 교인들 가운데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상당수이겠지만,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장은 의무이다. 예수님께서

1. "About Nominal Christians," Ministry Data Institute, accessed October 6, 2024, http://www.mhdata.or.kr/mailling/Numbers217_231128_Full_Report.pdf.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같은 인류에게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요 14:9 참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 가야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2. 성경 공부

어떤 것을 배운다 혹은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읽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은 참된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지식을 늘려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특별히,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성경 공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따라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잘 공부하고 교육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또한,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 4:11-13).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단순히 입술로 지식을 전수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

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자격 혹은 자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자의 자세와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시간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장의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기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한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 23:7)이라고 가르쳐 준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곧 우리의 인격이고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십 분, 이십 분, 혹은 삼십 분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시 1:1-3).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의 원어인 ‘하가’는 ‘울조리다’, ‘중얼거리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말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생각살기

1.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2. 다음 모임 때까지 성경 읽기표를 따라 혹은 자신이 정한 계획에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들 중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을 묵상하며 사는 훈련을 해봅시다.

